

◇심실중격 결손증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및 잔존결손의 추적관찰

황경환, 박표원, 전태국, 박계현, 채현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심실중격 결손증은 가장 많은 선천성 심질환중의 하나로 진단 및 수술 기법이 향상됨에 따라 수술시 연령이 어려짐에도 불구하고 술 후 입원기간 및 합병증은 감소되는 추세이다. 본원의 최근 심실중격 결손증 술 후 경과를 검토하여 이런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4년 10월 부터 1998년 6월까지 본원에서 수술한 단순 심실중격 결손증 217례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으며 복잡 심기형에 동반된 심실중격 결손증은 제외 하였다.

결과 : 217례중 남자는 145례였고, 여자는 87례였다. 수술시 1세미만의 영아는 124례[57%]였으며,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는 25례였다[12%]. 심실중격결손으로 접근을 위하여 전례에서 우심방이나 폐동맥 절개를 하였다. 수술 사망예는 없었으며, 장기간 인공호흡기 보조 및 일시적 부정맥을 포함한 합병증의 발생은 43명[21.5%]에서 65건이 발생하였다. 일시적 부정맥으로는 8례에서 일시적 심박 조율기의 보조를 받았으며, 술 전 우각 방실 차단이 있던 1례를 제외 하고 전례에서 퇴원 전에 정상 리듬으로 되었다. 술 후 폐 합병증으로 72시간이상 기계호흡을 사용한 경우는 27례[13%]가 있었으며 이것은 술 전 환자 상태[인공 호흡기 보조, 심근 수축력 증가 약물, 심부전, 폐렴등]및 폐동맥 고혈압등과 연관이 있었다[p<0.05]. 재수술은 술 후 출혈 2례를 포함하여 4례로 술 후 상태는 양호 하였다. 술 후 심장 초음파 추적 관찰에서 1례에서 경도의 잔존결손이 있었으며 중등도 이상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과 승모판막 폐쇄부전은 각각 1례있었다. 추적기간이 1년 이상인 145례 중 술 후 경미한 대동맥 폐쇄부전이 16례, 삼첨판 폐쇄부전이 50례 있었으나 1년 이내에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멸하였다.

결론 : 심실중격결손증 수술후 사망 및 심각한 합병증 발생율면에서 조기 성적은 만족할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아및 여러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합병증의 발생율은 아직 높은편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술전후 집중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책임저자: 박표원(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황경환(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